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21)

1. 지소미아 종료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아베 총리는 23일 0시 만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협정을 종료한 뒤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할 단계가 아니며 끝까지 (협정 지속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언¹⁾
- 나가미네(長嶺) 21일 이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 “(지소미아는) 동아시아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 하여금 현명한 대응을 하도록 촉구하고 싶다”고 발언²⁾

□ [일본 재계 동향]³⁾

- 일본무역회의 나카무라(中村) 회장은 20일 카지야마(梶山)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안전보장문제와 정치의 안정은 비즈니스를 이행하는 판단의 기반으로, (투자자는) 그 기반에 대해 우려하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안전보장 측면에서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요청

□ [WTO 2차 협정과의 관련 여부]

- 일본 언론들은 한국 측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일 WTO 양자 협의시에 지소미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보도⁴⁾

1) 「安倍首相 「徴用」めぐる問題 韓国は約束順守を」 『NHK NEWS WEB』 (2019. 11. 21).
2) 「駐韓大使離任で会見「韓国はG S O M I A 賢明対応を」 『NHK NEWS WEB』 (2019. 11. 21).
3) 「安倍問題 投資へ影響懸念 貿易会会長「日米韓の協力重要」 『産経新聞』 (2019. 11. 21), 「WTO パネル本格検討 輸出規制強化 韓国「日本に根拠なし」」 『静岡新聞』 (2019. 11. 21).
4) 각주 3의 시즈오카신문, 「輸出規制、日韓再協議も平行線」 『朝日新聞』 (2019. 11. 20), 「日韓WTO協議：日韓WTO協議、平行線 韓国側、打ち切り示唆 輸出規制」 『毎日新聞』 (2019. 11. 21).

2. 강제징용 배상방안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아베 총리는 한국 문화상 국회의장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NHK)⁵⁾
- 자민당의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문 의장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 측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달함.
- 이와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제대로 한일 간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 진행하면 된다”고 답변함.
- 한편 문 의장은 ‘1+1+ α (한일 양국 기업, 양국 국민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3. 한일 관계 악화가 일본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관련

□ [동향]

- 산케이신문은 21일 한일 관계 악화가 일본의 관광산업 및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⁶⁾
- (여행업)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5년 5개월만에 저조한 수준 (10월 기준, 19만 7,300만명, 전년동월대비 약 65.5% 감소)을 기록⁷⁾
- (소매업) 아시아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오사카시의 한 쇼핑거리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7~10월 기준 금년 상반기 대비 약 90% 감소) 하였으며, 키타츠(近鉄) 백화점에서는 3~8월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20% 감소

5) 각주 1의 NHK.

6) 「関係悪化 企業活動にも波及」 『産経新聞』 (2019. 11. 21).

7) 「訪日韓国人65%減 10月 5年ぶり20万人割れ」 『産経新聞』 (2019. 11. 21).

- 온워드 홀딩스는 한국시장에서 철수(2020년 2월)를 결정하였으며, 데상트는 7~9월 한국 내 매출액이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음. 한국의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였던 아사히맥주 HD도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
- 산케이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일본 기업의 한국 관련 사업의 재검토(축소)가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